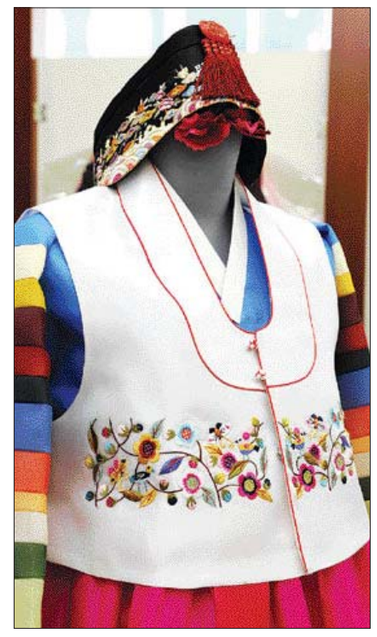
유행 지난 한복에 노리개를 다는 등 작은 변화만 줘도 설날 옷맵시를 살릴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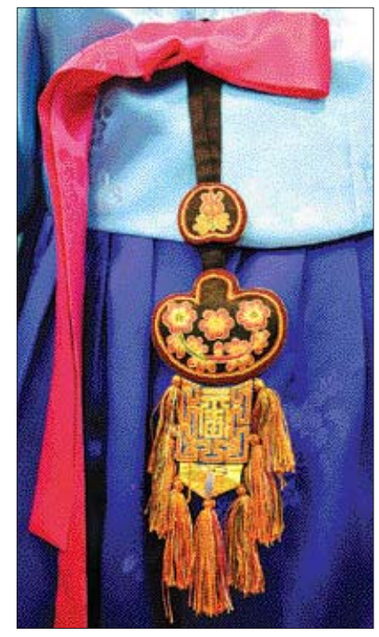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유행 지난 한복,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사기도 부담스럽다. 명절 때마다 같은 한복을 입지 말고 간단한 '한복 리폼'을 통해 설날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옷맵시를 뽐내보자.

저고리 위에 배자를 겹쳐 입거나 노리개를 다는 등 작은 변화만 줘도 한복은 새옷이 된다.

'설' 오래된 한복 멋지게 입기

당의 입고 노리개 달고 색다른 옷맵시 뽐내자





단조로운 한복에 남바위나 배자(왼쪽)를 활용하거나 노리개로 포인트를 주면 한결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배자나 당의로 색다른 분위기 연출=조끼 형태의 배자나 궁중 예복 중 하나인 당의를 입을 경우 기존에 입던 한복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한복 리폼' 간단하게

최근엔 사극의 영향으로 배자에 리본을 달거나 주름을 잡고 수를 놓는 등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여지고 있다.

보통 배자는 기존 한복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것이 관건. 치마 색에 맞춰 배색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면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다. 다홍치마라면 은은한 연두색이나 흰색이 무난하고 북청색(회색 계열), 남색 계열 치마에는 옥색, 미색, 흰색 배자 안정감을 준다.

◇고름을 수선하고 장신구만 활용해도 효과적=고름의 경우 몇 년 전까지 길고 폭이 넓었지만 최근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고름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볍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다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 고름 길이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얌, 남바위 등을 머리에 쓰거나 노리개, 뱁시댕기 등 장신구를 활용해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한복 색상이 단조롭다면 노리개를 포인트로 활용한다. 한복의 기본 색상인 자주색이 들어간 노리개는 어디에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보통 저고리 색상에 맞춰 노리개를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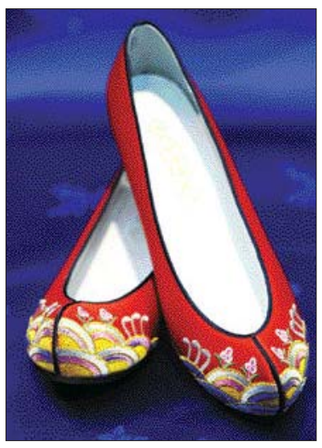
한복에 구두를 신는 것은 가장 꼴불견. 치마 색이 짙다면 어두운 색상의 신발을 택하는 것도 좋다.

3만~12만 원에 대여

◇한복 대여점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일 년에 한두 번 입는 한복을 유행에 따라 입어보고 싶다면 대여점을 활용해도 좋다. 대여는 광주 만수무강 한복 대여점(062-525-8253, 372-5233), 아름한복 대여점(062-527-5585), 나래한복(062-676-5550)등 주요 한복 대여점에서 빌리면 된다. 대여료는 한복 종류에 따라 3만~12만 원 선. 유행하는 한복이라든가 좀 특별하게 멋을 내고 싶다면 커플 한복이나 가족한복을 선택하면 된다. 커플한복(배자 포함)은 12만 원이며 가족한복(4인 기준)은 16~23만 원. 아동한복의 경우 2만~4만 원 수준이다.

〈도움말 = 부영상회 박혜순 대표〉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복에 무난한 고무신.

올린머리에 어울리는 뒤꽂이.

■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입술 화장은 밝은 색상으로 부드럽게

한복 색상은 화려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화장이 어울린다. 한복 고유의 선과 옷맵시를 살리는 맑고 투명한 화장법이 따로 있다.

◇기본 메이크업=한복은 채도가 높아 평소보다 피부화장을 한 단계 밝게 표현해야 피부가 깨끗하고 화사해 보인다. 펄 느낌이 들어간 파우더로 마무리 하면 좋다.

눈썹은 아치형으로 둥글게 그리면서 눈썹 결을 따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눈화장은 저고리 색상과 유사한 계열을 선택해 얇게 펴바르고 아이라인을 얇게 그린 뒤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

포인트가 되는 입술 화장은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다. 될 수 있으면 밝고 선명한 색상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볼 화장은 혈색있어 보일 정도로 가볍게 터치해 준다.

◇연령별 화장법=20~30대의 경우 피부에 탄력이 있으므로 투명 메이크업으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색조 화장은 연한 베이지, 밝은 브라운, 와인색이 좋다.

40~50대는 평상시보다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핑크빛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눈 주위나 입가는 최대한 얇게 펴발라 주는 것이 좋다.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의 펄이 가미된 엘로우, 골드, 보랏빛이 섞인 와인색으로 지적인 분위를 연출하면 된다.

◇한복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한복에 가장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은 올린 머리. 앞가르마를 한 머리가 부담스럽다면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를 땋거나 단정하게 묶어 망으로 머리를 고정시켜 올리면 된다. 꽃이나 머리띠처럼 쓰는 뱁시댕기 등 한복 장신구를 활용해도 좋다.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을 때는 맑고 투명하게 화장을 해야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도움말 = 광주mbc아카데미 뷰티스쿨 곽주영 메이크업 전임강사〉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